

'87. 프레올림픽
경축 제10회 부산무대예술제

연극공연

'87. 9. 17 ▶ 9. 24

《오후 5시 · 7시 30분》

시민회관 소강당

- 주최 : 한국예총 부산지회
- 주관 : 한국연극협회 부산지부
- 후원 : 부산직할시 · 문예진흥원 · 한국예총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 부산일보사
부산문화방송 (주) · 한국방송공사 부산방송본부



劇團 부두劇場

'87. 프레올림픽경축
제10회 부산무대예술제 참가작품
제14회 정기공연

숲속의 방

'87. 9. 21 ▶ 22
《오후 5시, 7시 30분》
시민회관 소강당

원작 / 강석경

연출 / 이성규

기획 / 김홍근

무대감독 / 조문선

대표의 말



이성규

(연출)

보편적 다수의 공감을

평범하면서도 보편적 다수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으며
피상적이 아닌 절실한 문제를 다룬 작품으로써 시대적
문제점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작품이라면……?

‘숲속의 방’은 이렇게 해서 선택되어진 작품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속셈이 뻔한, 상업주의적 계산에 의한
인기소설의 연극화, 서울에서 한번 공연되어진 작품의
무사안일의 재탕공연이란 식견있는 평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추상화된 가치와 과잉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작금의 현실에 소수인과 중간자의 입장을
예리하고도 정직하게 묘사해 놓은 이런류의 작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각색과정에서 흥미진진한 극적사건도 없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인물들만이 등장해서 망설이기로 했으니-
인물구성이 연극적 갈등구조를 잘 포함하고 있고 정직한
작가정신과 차분하게 또 일관되게 추구된 주제의식에
마음이 끌렸다. 어느정도 호소력이 있는 작품이 될것인지
배우들의 문제의식과 집중력 앙상블에 기대해 볼 수 밖에-
도와준 가마골 배우들에게 감사한다.

작가의 말



강석경
(소설가)

본질에다가가는 작업을

흑백논리가 지배적인 시대에 글을 쓴다는 일이 어쩐지 미약한 행위로 여겨진다. 시대가 주는 중압감 때문에 문학의 가치에 대해 반문해 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더 나은 것을 꿈꾸는 작가들은 기존의 해답에 끊임없이 의의를 제기하며 자기 몫의 인생탐구를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편의 책을 묶으면서 무엇보다 나의 과작을 반성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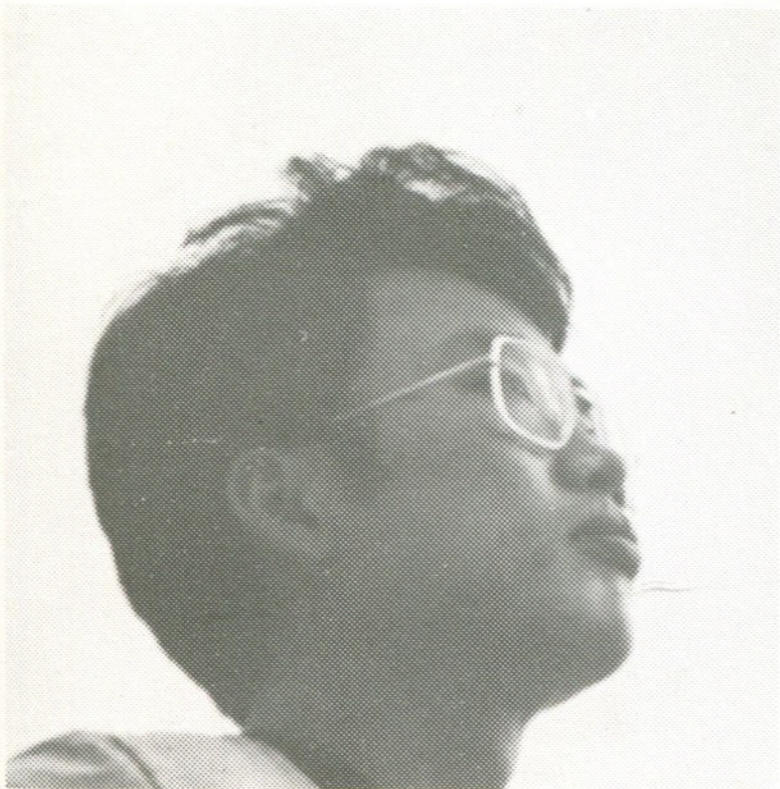
자기와의 싸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내 삶은 오류투성이 일지라도 문학은 그것을 통해 아프게 걸러진 정수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본질에 다가가는 작업이므로 수도자처럼 각고해야 하리라.

이 각고가 누군가의 삶에 아스라한 불빛이 된다면 더없이 기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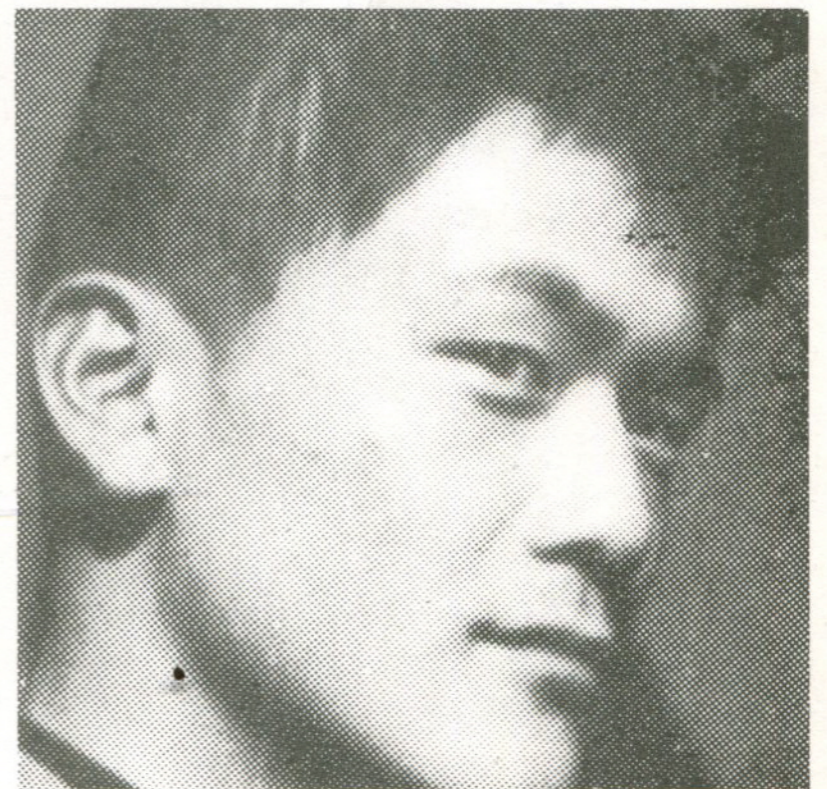
스타프



기획/김홍근



무대감독·장치/조문선



조명/김광보



기획보/김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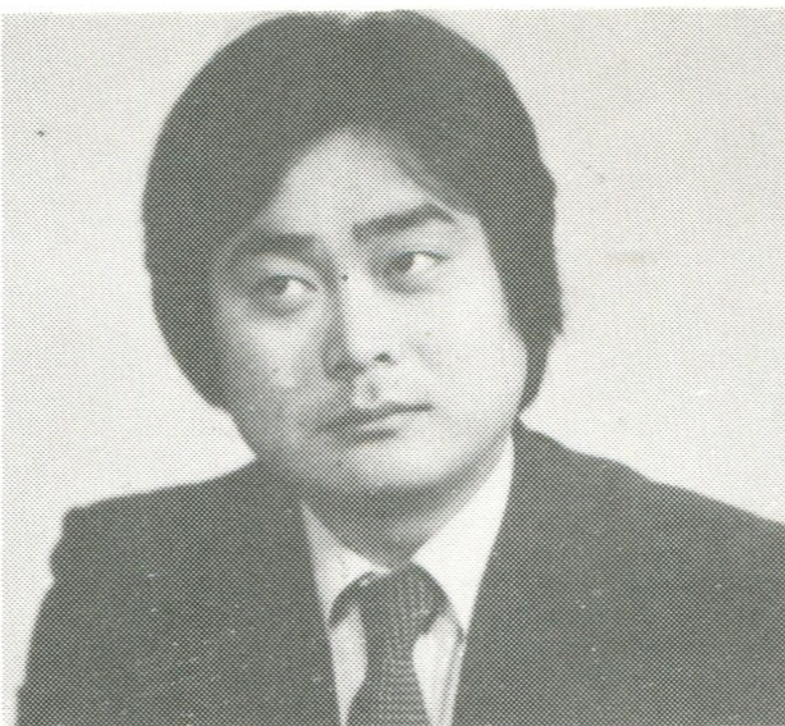
효과·분장/허정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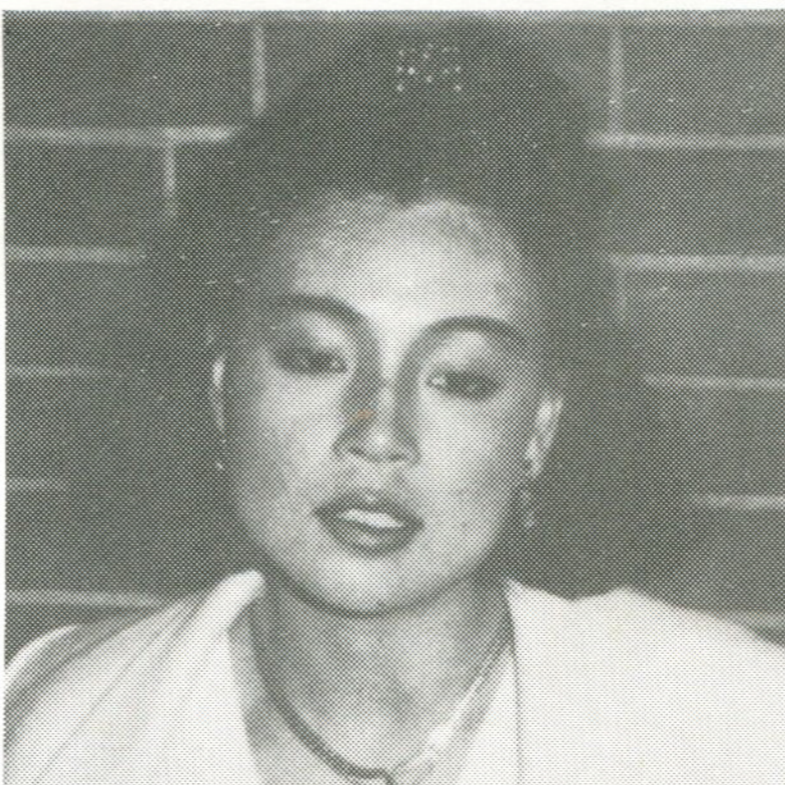
의상·소품/김주현

캐스트

아버지 / 박 찬 영
어머니 / 강 미 정



객원출연·미양 / 김 미 경
객원출연·소양 / 이 영 아



하르노·희중 / 박 지 일



명 주 / 김 설 하



객원출연·경옥 / 윤 석 란

『오늘의 작가상』을 결정하면서

오늘의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공감을 가지고 날카롭게 그러나
균형잡힌 시각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다루었다.
이 작품에서 강석경씨가 보여준 능력은 결코 일시적인 것도 우연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금년 봄의 그의 창작집 『숲속의 방』의 다른
작품들에게도 증거되는 것이다. 이 다른 작품들에게 다루어져
있는 것은 반드시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은 우리시대의 인간- 젊은 세대의 인간에 대한
똑같은 공감적이며 예리한 記述이다. 우리는 균형있는
스타일이 우리시대의 사회적 맥락의 복합적 얼크러짐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그 사실적 정확성, 그 공감능력, 그
균형된 지성을 높이 산다.

金禹昌 柳宗鎬

제 3의 삶과 회색지대의 진실

작품해설

6.29선언 이후 민주화의 물결을 타고 계층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과잉된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는 소위 코페르니쿠스식 대전환의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다. 歴史的으로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추상화된 가치가 삶의 전면을 장악하고 주체적 삶을 상실한 허위허식이 팽배하게 된다.

작품 숲속의 방은 80년대적 시대적 모순에 의해 희생당하는 한 여대생의 죽음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보편적인 삶의 현상인 다중성과 제 3의 삶(회색지대) - 을 용인치 못하는 빗장이 걸린 인식논리학의 허위적 현실을 고발하고 기성사회의 다중된 혼돈과 관련된 현상으로 현실의 가장자리에서 부유하고 있는 80년대식 젊은 풍속을 드러내 보이며 과행적 행로를 겪고 있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한국사회에 대한 위험수위를 새로운 시각으로 표출하려한 작품이다.

주인공 소양은 현실이 없고 진실이 없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극심한 단절함을 느낀다. 안락한 삶의 환경을 가진 소양이가 왜 자살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를 밝혀 보려한 것이 이 작품의 제일차적 의도라면 기존의 가치관이나 단순한 민중논리로써는 포착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보다 진실된 삶을 보여 주는 것이 이 극의 궁극적인 의도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우리와는 친숙한 보편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나뉠대로의 각자의 사회적 고리를 가지고 있고 유형화된 인물들로서 소양이의 죽음에 직- 간접으로 연관된다. 가정과 사회의 헤게모니를 거머쥐고 젊은 세대와 갈등하는 기성세대의 상징으로서의 아버지는 6.25라는 쓰라린 전쟁체험과 이후의 고생과 보상을 경험한 보수적 현실주의자이다. 그의 현실인식은 숙물적이고 편협하여 자식세대와 갈등을 일으킨다. 아버지의 물질적 바탕과 보호안에서만 존재하는 어머니는 자존심 위주의 극히 개인적인 지성주의자로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식 세대에게 현실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소양이 세대의 인물들도 젊은 세대의 현상을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명주는 소위 말하는 운동권

학생으로써 그녀의 표현대로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쳐진 젊음이다. 그러나 그녀의 인식의 고리는 도식적인 민중 이데올로기로써 오만한 엘리트 의식에 가득차 있다. 경옥은 어설픈 윤리의식을 거부하고 편한대로 삶을 소비하는 소위 말하는 '종로통 아이들' 을 대변한다. 하르노는 대학의 가치를 부정하고 사랑의 순수를 어설피 여기며 하루치기 Sex 에 탐닉한다. 그에게 있어서 종로란 스트레스의 배설이며 꿈을 상실한 왜곡된 휴식 공간일 뿐이다.

소양과 육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가까운 회중도 대학은 단지 취직을 위한 방편으로만 알 뿐이며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영악한 이기주의자로 현실에 편승하여 산다.

그는 편하고 쉽게 먹고 살기위해 노력할 뿐이며 어설픈 기성세대적 시각을 흉내낼 뿐이다.

이들은 모두 소양에게 안주할 방을 마련해 주지 못하며 우리시대의 모순적 인물들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주인공 미양이가 등장한다. 미양은 동생 소양이의 휴학이후 그녀를 이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녀는 잔인한 현실에 순응하여 순수와 꿈을 포기하여 무력하게 기성질서에 편입되기를 기다리는 결혼을 앞둔 약혼녀이다.

그녀는 소양이를 통해서 진실과 젊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나 그녀가 안주하는 순간 동생 소양이는 활활하게 자살하고 만다. 그녀는 비정하지도 냉철하지도 못한 평범한 현실주의자로서 어설픈 중간주의적 성격을 드러내 보인다.

그녀 역시 부유하고 있는 회색주의자이다 -

우리 현실의 실제 영역은 어떠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다. 회색지대를 용납치 않는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써 소양은 죽음을 택하지만 미양은 무력하게 현실에 순응한다. 바로 80년대 젊음의 보편적 다수의 얼굴인 것이다.

작품 「숲속의 방」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입체적으로 회색 제 3의 삶을 부각하여 회색지대에 진실이 있음을 보여 주려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남호

(문학평론가)